

ICT 기반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학문적 노력에 대한 고찰: 국내외 MIS와 유관 분야의 학술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¹⁾

A Study on the Academic Efforts for the Progress of ICT-Based Sharing
Economic: Using Meta-analysis in MIS and Other Related Fields

이중정 (Lee, Choong C.)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²⁾
안재영 (An, Jaeyoung)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³⁾
김행미 (Kim, Haengmi)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⁴⁾
김우석 (Kim, Wooseok)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⁵⁾

〈 국문초록 〉

공유경제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공유경제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해외 경제 선진국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각 학문 분야에서 진행된 지난 10년간 공유경제 연구를 수집하여 학술적 관점에서 공유경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 중에서 MIS 영역의 연구를 선별하여, 공유경제 내 MIS 영역 연구의 동향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와 MIS 연구의 연구 흐름을 확인하였고, 공유경제에서의 MIS 연구 중요도와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연구 간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도 도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적 접점을 가진 공유경제가 인접 학문의 활발한 연구를 독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산업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에 자리매김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공유경제, 문헌 검토, 경영 정보 시스템, 메타분석, 분류 관점

1) 이 저서(논문·예술포럼)는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2) 제1저자, 교신저자, cclee@yonsei.ac.kr

3) 제2저자, jaeyoungan@yonsei.ac.kr

4) 제3저자, hoahoa25@nate.com

5) 제4저자, wooseok.kim77@gmail.com

1. 서론

“공유”행위는 물물을 교환하는 행동 방식으로 오랜 역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방식의 관점에서 ‘공유’ 개념이 제시되어 산업 각 계와 학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Cheng 2016). 이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중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의 부상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공유’ 개념은 기존의 물물 교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 창출로서의 ‘공유’ 체계로 관심거리가 되었다(Gansky 2010).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공유’ 체계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재화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혜택을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공유경제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약 20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전 세계적으로는 공유경제가 창출해 내는 경제적 가치에 많은 기대가 예측되지만, 국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서경석 2018),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김경은 2019).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 공유경제 시장은 활발하지 않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각각의 입장에서 참여 및 소셜 네트워크의 형성이 쉬워졌고, 이들을 중개해 주는 공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기술력을 공유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다. 그리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지역 내 시민들이 공공 재화를 이용하여 유익하

고 편리한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는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공유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 공유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송경석 2014).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디지털 플랫폼은 모빌리티, 장소(공간), 물건 교환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공유 사업, 장소 플랫폼에서는 숙박, 회의실, 및 주차장 공유, 그리고 물건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고 거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도 공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시장에 정착되거나 성장하고 있는 못한 실정이다(김맹근 2020). 그럼에도 더욱 다양한 신규 공유경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 질서와는 다른 접근이 있는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윤승 2014). 이 같은 갈등은 해외 공유경제 성공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해당 사례가 성공한 국가와는 다른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성공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서비스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법과 제도, 사회적 필요의 틀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안착한 것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과 시장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공유경제가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로 발전되기 위해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학문에서 공유경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한국과 해외의 공유경제 연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공유경제를 글로벌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공유경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공유경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유경제 이용 연구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Cristobal-Fransi et al. 2019; Cheng et al. 2018; Chica et al. 2019; Wagner et al. 2019; Zamani et al. 2019; Li and Srinivasan 2019; Ert et al. 2016; Posen 2015).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탐색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공유경제의 기술 수용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정철호, 정영수 2020; 김지예, 한인구 2020; 정윤경 등 2020; 이정수 등 2016; 이현진, 박현정 2019; 안희자 2019; 최문용 2017). 또한, 김기연(2020)은 메타분석 기반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공유경제 동향을 살펴보았으나 해외와 MIS 분야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 모두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경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경영정보시스템(MIS)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MIS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방식인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간의 학술적 연구 흐름을 파악하여 공유경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MIS 관점에서 공유경제가 발전될 방안이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제공 플랫폼인 Web of Science에서 수집한 국내·외 공유경제 논문을 가지고 메타분

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공유경제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첫째, 최근 10년간의 공유경제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수집된 공유경제 연구 중 MIS 관점에서의 국내·외 연구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MIS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국내·외 공유경제 연구를 바라봄으로써 공유경제 연구에 대한 MIS 분야의 시의성 있는 연구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국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확대, MIS 분야와의 상생 활동, 공유경제 서비스와 MIS의 동반 성장에 필요한 환경적, 사회적,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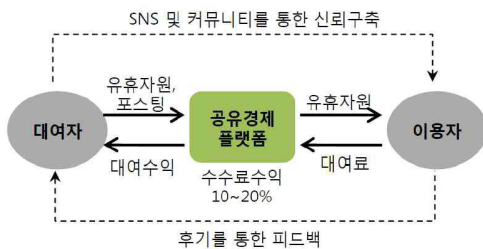
2. 개념적 배경

2.1. 공유경제의 개념 소개

공유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공유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다. 최초의 공유경제 용어는 1984년 마틴 와이츠먼(Martin Weitzman)에 의해 창안되었지만, 당시 개념은 기업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수익 공유 시스템’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의 공유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ng) 교수가 주장한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개념이다(박건철, 이상돈 2016). 로렌스 레식이 제시하였던 공유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 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다. 즉, 친구, 가족 및 공동체 속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는 이타성을 가진 것이다(고운승 2014).

상업적인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는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이다(이정민 등 2018).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 소유주가 값싼 가격에 방을 대여하는 서비스 중계를 하고 있으며, 우버는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즉, 개인 또는 조직/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유·무형 자원을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계하여 타인에게 일정 기간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얻는 구조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유 범위는 공급(개인, 기업)과 수요(개인, 기업)에 따라 C2C(Consumer to Consumer), C2B(Consumer to Business),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onsumer)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급(P2P, B2P)과 플랫폼 포지션(영리, 비영리)에 따른 매트릭스 구조에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 범위가 유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ICT 기반의 플랫폼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잉여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양측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림 1>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고운승 2014)

이 같이 ‘공유’의 개념에 상업적 개념이 추가되면서 그 의미가 협력 소비, 온디맨드 경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 지역,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다른 개념에 기반한 공유경제 개념과 용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표 1> 참조).

2.2. 공유경제 국내 연구 동향

국내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공유경제의 현황 조사, 탐색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최근 들어 서비스 이용 동기나 수용 모델 등을 주제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정철호, 정영수 2020).

이정수 등(2016)는 기술 수용 모형에 기반하여 공유경제 서비스의 가치 및 이용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가격 민감성, 자기 효능감, 기술 혁신성, 신뢰성 등 4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조은주, 서상혁(2018)은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요인(지각된 유용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지속 가능 지향성, 지각된 위험)과 소비자 가치(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그리고 서비스 이용 의도 간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 공유경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용 의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장염, 박현정 2019; 조연수, 정용길 2019).

반면에, 김형균, 오재환(2013)은 공유 대상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여 그 자원을 공간, 물건, 지식, 교통 등을 주요 자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원 유형에 따른 국내 선행연구는 공간과 교통 자원 유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고, 공간 자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및 사용 의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거나 서비스 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최문용 2017; 이현진, 박현정 2019; 안희자

〈표 1〉 용어에 따른 공유경제 정의

용어	정의	저자
Sharing Economy, Shareconomy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조정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 제공 또는 공유하는 P2P 기반 활동	Cheng et al.(2018) Hamari et al.(2016)
Collaborative consumption	최신 기술과 P2P 시장을 통해 한명 이상의 사람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유, 물물교환, 거래 등을 하는 활동	Hamari et al.(2015) Botsman and Rogers(2010)
Collaborative economy	기업, 스타트업, 사람 간 소유권 접근권이 공유되는 경제 모델	Owyang et al.(2013)
Access-based consumption	고객에게 접근 요금에 대한 대가로 일시적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되 법적 소유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거래 활동	Lawson et al.(2016)
Gig economy	프리랜서 또는 비 영구직 사람(노동자)들이 유효한 시간에 자신의 기술력을 공유하는 활동	Gleim et al.(2019)
Platform economy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동료 간 중개 분산 교환하는 활동	Acquier et al.(2017)
Peer-to-peer economy	재화와 용역을 서로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함께 생산하는 분산형 모델	Sundararajan(2016)
On-demand economy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와 기술 제공 기업들이 만들어낸 경제 활동	Van doorn(2017)
Microtask, microwork, micro-tasking, micro-working	디지털 공간에서 더 크고 복잡한 작업을 작고 잘 정의된 작업으로 나누어 많은 작업자가 참여 작업을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Taeihagh(2017) Aluchna and Rok(2018)

2019; 심수진 2016). 교통 자원에서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임한술, 성정환 2016; 이경민 등 2018; 광수환, 조연성 2015).

이와 같이 국내 공유경제 연구에 있어 교통 자원과 공간 자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선진국에서 이 두 자원의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고윤승 2014). 따라서 아직 국내의 공유경제 성공 사례가 부족하여 실증적 연구보다는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이용자의 이용 의도, 영향력과 같은 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 거래 방식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장우 등(2015)는 B2C, B2B, P2P, C2B를 4가지 유형으로 공유경제의 중개 플랫폼에 의해 거래 방식을 구분하였고, 최유성, 안혁근(2018)은 P2P, B2P, G2P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유성, 안혁근(2018)은 이 같은 공유 주체인 거래 방식에 따른 국내 공유경제 현황

을 분석한 결과 B2C 방식 공간, 교통 부문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내 공유경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이나 영향 연구, 서비스의 지속 사용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공유 서비스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에 관한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은 개인의 공유경제를 ‘이용’에 중심을 둔 연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데이터(정보)는 공유경제가 이용되고 있는 특정 지역(도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공공 부문에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화, 복지서비스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통해 발생된 데이터(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유경제 연구가 MIS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유경제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 각 영역과 좀 더 밀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은 갖는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연구는 해외 선진국보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최유성, 안혁근 2018), 고운승(2014)이 국내 공유경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인지도 향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각도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3. 공유경제 해외 연구 동향

공유경제 개념의 정립과 산업적 활용 등은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외의 공유경제 연구는 국내보다 다양성을 갖고 진행됐다.

해외 공유경제 연구에서는 실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성공 사례도 있으므로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 동기, 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서비스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는 같은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공유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업체들은 타사와의 차별화한 전략을 통해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다.

Botsman and Rogers(2010)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혜택, 다양한 선택의 폭,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대, 새로운 인간관계 확대 등을 서비스 사용 동기 요인으로 뽑았다. Latitude(2010)는 공유경제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는 온라인 기술의 발전, 커뮤니티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증가, 글로벌 불황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유경제 서비스 참여가 늘었다고 보았다. Tussyadiah(2015)는 숙박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조사하여, 촉진요인으로 경제적인 혜택, 환경의 지속가능성, 커뮤니티의 평판과 인간관계 구축을 뽑았고, 저해요인으로 신뢰의 부족, 기술 효용성의 부족, 경제적 혜택을 저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의 자원을 대상으로 보면, 숙박 서비스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호텔 및 관광 산업에 끼치는 영향, 특정 지역/국가에서의 에어비앤비의 가격 정책,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평판과 신뢰도 연구 등 다른 공유자원보다 전통적인 호텔산업과의 비교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다(Cho et al. 2019; Sung et al. 2018; Zekan et al. 2019; Zloteanu et al. 2018).

우버와 같은 공유 차량 연구에서는 공유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연료 소비의 감소 유효성(Martin et al. 2010; Cervero et al. 2007) 등과 같이 서비스 자체보다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도메인에 한정하지 않고 공유경제가 사회 내에서 마찰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사, 정책연구, 조언 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Cao 2017; Cherry 2017; McGinnis 2018; Miller 2016). 또한, IT에 기반한 서비스인 만큼 플랫폼 자체의 모델링, 알고리즘 개발 같은 기술 개선 연구(Cao 2017; Cherry 2017; McGinnis 2018)도 수행되고 있다.

이렇듯 해외 공유경제 서비스 연구는 공유자원의 활용 영역과 연구 목적에 따라 경제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에 기반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행된 공유경제 서비스 연구보다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사회적 기여가 높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에서 수행된 공유경제 서비스 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에 해외에서 수행된 공유경제

서비스 연구 경향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공유경제 연구가 사회적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메타정보 설정

3.1. 메타분석 연구방법론

메타분석은 ‘연구에 대한 연구, 분석에 대한 분석’으로, 이전에 진행된 연구 성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한 규칙성을 밝혀내는 연구방법이다(성욱제 2012; 곽나연 등 2017). 즉, 지금까지 학술연구 문헌으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해당 주제의 변화 흐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같이 기존 연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특정 주제/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많은 양의 연구를 이른 시일 안에 이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에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덕호 등 2011)

Cooper(1982)는 현재의 연구를 조망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 방법론적 검토, 각기 다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통합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검토(Research Review)와 메타분석(Meta-Analysis)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두 방법론이 활용된 연구의 목적은 상이하고 특히 연구검토는 그간의 연구를 요약하지만 메타분석은 요약뿐만 아니라 반영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Cooper 1982).

또한, 성욱제(2012)는 기존의 문헌 검토(Literature Reviews)와 메타분석의 차이는 메타분석 연구 자체가

분석의 자료가 되고, 메타분석에서는 과거의 개별 연구 하나하나가 개별 사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대상들을 기준에 맞춰 특성을 비교하게 된다(성욱제 2012).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다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안정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약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 종류의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메타분석의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신태범, 권상희 2013).

특정 주제에 대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검토하고 조망하여 분석/평가하는 작업은 연구자에게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메타분석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성욱제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화두가 되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망하기 위해 메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3.2. 분석 대상 선정 및 절차

공유경제 연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서 분야별 우수 학술지를 선별하여 색인하고 있는 Web of Science에서 공유경제를 주제어로 검색하여 논문을 수집하였다. Web of Science에서 전 세계 우수 학술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 중에서 우수 학술지만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는 한국 학술지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KCI(Korea Citation Index)를 제공하고 있다. Web of Science에는 단일 자료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지의 논문까지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료원이다.

Web of Science에서 논문을 검색한 기준은 최근에 공유경제의 개념이 대두되고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으로 한정하되,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전체 세부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논문의 제목의 키워드가 ‘공유경제’인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Web of Science에 색인된 SCIE와 SSCI의 공유경제 논문은 총 465편이었고 이 논문은 두 단계의 거처 메타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수집한 465편의 논문 중 각 논문의 서지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한 최종 데이터는 328편으로 확정하였다. 그다음으로 메타정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선별된 328편의 논문을 분류 기준에 맞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328편의 논문 중 MIS와 관련된 연구 분류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MIS 관련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에서는 IT(Information Technology)나 IS(Information Systems)를 이용하였거나, 연구 대상으로 다뤄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MIS 관련 연구로 선별된 논문은 총 79편이다. 또한, Web of Science에서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KCI 연구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집한 국내 공유경제 논문은 총 112편이고, 이 중에서 MIS 관련 논문은 40편으로 선별되었다.

3.3. 공유경제 분석의 메타정보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할 메타정보 분류는 학문 분야, 국가, 출판연도, 공유자원 유형, 공유경제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각 분류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3.3.1. 학문 분야

공유경제의 논문을 추출한 Web of Science에서는

크게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 예술 분야의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이 3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하부에는 총 252개의 학문 분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학문 분야는 각 학술지가 수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분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1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 속한 논문은 Web of Science에서 분류한 첫 번째 학문 분야만 해당 논문의 학문 분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SCIE/SSCI에서는 26개, KCI에서는 16개의 학문 분야가 도출되었다.

3.3.2. 국가

SCIE/SSCI에서 공유경제 연구의 국가별 연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기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1개의 논문에는 여러 나라의 저자들이 협력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공유경제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의 첫 번째 저자(First Author) 소속기관의 국가로 분류하였다.

3.3.3. 출판연도

출판연도별 논문 수는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와 비례하는 만큼, 논문의 출판연도를 파악하는 것은 공유경제 연구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연도를 대상으로 검색한 경우와 최근 10년으로 한정하여 검색한 경우, 두 경우에서 논문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최근 10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최근 10년 내에서 출판연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3.3.4. 공유자원 유형

공유자원 유형의 분류 기준은 Johal and Zon(2015)이 제시한 자원 유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

서 공유자원 유형이 교통, 소매, 숙박, 서비스와 노동, 금융 등이 대표 자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특정 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원은 ‘기타 자원’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3.3.5. 공유경제 연구주제

Heinrichs(2013)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공유경제가 이를 실현해 줄 잠재적 동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글로벌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경제 연구 의제(agenda)로 7가지를 제시하였다(Heinrichs, 2013). 본 연구에서는 Heinrichs가 제시한 7개의 의제와 수집된 공유경제 논문 내용을 비교하여 6개의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표 2> 참조).

3.4. 공유경제 내 MIS에서의 메타정보 분류 기준

SCIE/SSCI 328편, KCI 112편의 공유경제 논문 중 MIS 관련 논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 대상이 IT 혹은 IS가 되는 경우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논문 초록을 확인 후 분류를 하였고, 그 결과 SCIE/SSCI 논문 중에서 79편, KCI 논문 중 40편이 MIS 관련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선별된

MIS 연구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연구방법, 분석 단위, 국가를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분류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3.4.1. MIS 연구 주제별 분류

선별된 MIS 논문을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Palvia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 동안 MIS 분야 주제 동향을 분석하여 MIS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8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본 연구에서는 Palvia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MIS 분야의 공유경제 연구 주제를 5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기준에서 사용된 IS용어는 공유경제 사업에 도입되는 ICT에 대한 응용, 플랫폼, UX 등 포함한다.

3.4.2. 연구방법

Vessey et al.(2002)는 MIS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을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 수학적 분석(Mathematical Analysis), 사례 연구(Case Study),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현장연구(Field Study), 시스템 평가(System Evaluation), 도구 개발(Instrument Development),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human Subjects)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IS 분야의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Vessey et al.(2002)가 제시한 분류

<표 2> 공유경제 연구주제별 분류

주제	내용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으로 생산과 공급방식의 변화, 수요에 대한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 등 공유경제의 전반적인 경향, 흐름 등에 대한 연구
공유경제 이론적, 실증적 분석과 측정	공유경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 비즈니스모델 분석, 인식 연구,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 방식의 관계 및 영향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관계 연구로 기존 산업의 쇠퇴, 양쪽 경제방식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과 측정 연구
공유경제의 시나리오 연구	공유경제의 잠재적 발전 방향 예측을 위해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기여하는 연구
다양한 영역의 사회 구성원의 발전 노력	공유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행하고 있는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 노력

〈표 3〉 MIS 연구 주제별 분류

Palvia et al.(2015)	MIS 연구 주제별 분류	내용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IS 활용 및 기술 수용
지식 관리		
정보 시스템 기능 응용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IS 설계 및 모델 개선
정보 시스템 이론	정보 시스템 이론	이론 연구
정보 시스템 평가	정보 시스템 평가	IS 서비스 등의 품질 및 평가
내 외부적 IT 환경	내 외부적 IT 환경	IS 운영에 필요한 내/외적 환경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	설명
개념적 분석	개념적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내용분석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도구개발	저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실시하여 틀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
시스템평가	기준에 있는 틀을 활용하여 실행가능성 및 개념구현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연구
설문	설문을 통한 연구
메타스터디	연구 전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연구

기준 중에서 관련성이 적은 연구 방법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 적은 연구 방법을 제외한 개념적 분석, 도구 개발, 시스템 평가, 설문, 메타 스터디 등으로 분류하였다(〈표 4〉 참조).

3.4.3. 연구분석 단위

Vessey et al. (2002)는 연구방법론 분류 외 연구분석 단위도 제시하였으며, 분석 단위를 개인(Individual), 기관(Institution), 국가(National), 기술(Technology), 사회(Society), 전문가(Profession), 그룹/팀 (Group/Team), 추상적 개념(Abstract Concept), 컴퓨팅 요소(Computing

Element), 컴퓨팅 시스템(Computing System) 등 10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분석 대상 논문을 검토한 결과 개인, 기관, 국가, 기술 이외의 항목은 연관성이 없어 본 연구에서의 연구분석 단위의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분석 단위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3.4.4. 국가

전체 공유경제 논문에서 국가별 분류를 수행하였지만, MIS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연구의 국가별 동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MIS 분야에 속하는 공유경제 국가별 연구를 추가로 분류하였다.

〈표 5〉 연구분석 단위에 따른 분류

구분	설명
개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
기관	조직 및 기관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
국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이슈를 고찰하는 연구
기술	특정 시스템 및 기술, 컴퓨팅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

4. 연구분석 결과

4.1. 공유경제 분야 분석

4.1.1. 학문 분야별 공유경제 연구 동향

공유경제의 학문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학”, “환경학” 연구가 전체 연구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법학”, “정보 시스템학” 학문 분야 순서로 연구가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5개 학문 분야는 전체 공유경제 연구의 약 70% 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발전해 온 공유경제의 주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영학”, “환경학”, “법학”,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학문 분야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유경제 연구 분야와는 전혀 다른 “정보 시스템학”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상위 5개 분야 내에 속한 결과는 MIS 분야가 공유경제 연구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표 6> <부록 1> <부록 2> 참고).

한편, KCI 공유경제 연구 분야는 “경영학”, “법학”, “다학제 과학” 학문 분야가 전체 논문 수의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사회학”, “정치학” 학문 분야 순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공통 1위인 학문 분야는 “경영학”이고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법학” 학문 분야도 국내·외 상위 5위에 포함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유경제 학문 분야의 핵심 연구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상위 5개 분야 중 공통적이지 않은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해외는 “환경학”, “정보 시스템학”, 국내에서는 “다학제 과학”, “사회학” 학문 분야에서 각기 특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유경제가 사회적 이해 상충에 따른 사회적 쟁점으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1.2. 연도별 공유경제 연구 동향

2009년부터 2019년까지 SCIE/SSCI 공유경제 논문을 확인한 결과 게재, 2012년 처음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에서 논문이 게재되었다(<부록 1> 참고). 이후, 2013년도부터 <표 7>의 상위 10개 학문 분야에서 공

<표 6> SCIE/SSCI, KCI 공유경제 논문 상위 10개 학문 분야의 논문 건수 및 점유율

SCIE/SSCI		KCI	
경영학	86(26%)	경영학	28(25%)
환경학	66(20%)	법학	18(16%)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36(11%)	다학제 과학	14(13%)
정보 시스템학	19(6%)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9(8%)
법학	18(5%)	사회학	6(5%)
경제학	16(5%)	정치학	6(5%)
사회학	12(4%)	경제학	5(4%)
산업공학	10(3%)	보건 과학 및 서비스	4(4%)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10(3%)	지역 및 도시 계획학	4(4%)
지역 및 도시 계획학	10(3%)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4(4%)
합계	283(100%)	합계	98(100%)

〈표 7〉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상위 10개 학문 분야의 연도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경영학						2	3	6	16	24	35	86(26%)
환경학					1		2	2	12	17	32	66(20%)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2	8	10	16	36(11%)
정보 시스템학						1		2	1	5	10	19(6%)
법학							2	2	5	3	6	18(5%)
경제학								1	7	3	5	16(5%)
사회학								1	2	9		12(4%)
산업공학									2	1	7	10(3%)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1		4	3	2	10(3%)
지역 및 도시 계획학									4	4	2	10(3%)
합계					1	3	8	16	61	79	115	283(100%)

〈표 8〉 KCI 공유경제 논문 상위 10개 학문 분야의 연도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경영학					2	4	2	2	4	7	7	28(25%)
법학								2	4	8	4	18(16%)
다학제 과학					1			4	3	2	4	14(13%)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4	1	2	2	9(8%)
사회학							1			4	1	6(5%)
정치학					1		1	2			2	6(5%)
경제학									3	1	1	5(4%)
보건 과학 및 서비스								1	2	1		4(4%)
지역 및 도시 계획학		1					1			1	1	4(4%)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1		1	2	4(4%)
합계		1			4	4	5	16	17	27	24	98(100%)

유경제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공유경제 논문이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 133개의 논문이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는 재화나 서비스 공유를 위한 “경영학”, “환경학” 학문 분야가 주된 연구의 흐름이지만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정보 시스템학”, “법학” 학문 분야 연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IS 분야에 속하는 “정보 시스템학”은 해외 연구에서 2018년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어 국내와 다른 변화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I 공유경제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지역 및 도시 계획학” 학문 분야에서 처음 공유경제 논문이 게재되었고, SCIE/SSCI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2016년부터 게재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표 8> <부록 2> 참고). 하지만, 2018년 이후 논문 게재 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결과도 확인하였다.

4.1.3. 국가별 공유경제 연구 동향

국가별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이 전체 논문 수의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표 9〉 SCIE/SSCI 공유경제 논문의 연도별 국가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미국						1	2	4	14	16	25	62(19%)
중국				1					6	12	27	46(14%)
영국							3	3	11	8	5	30(9%)
한국								1	2	9	9	21(6%)
독일					1		1		6	5	7	20(6%)
호주							1		4	4	10	19(6%)
스페인								2	3	3	5	13(4%)
이탈리아									3	4	4	11(3%)
스웨덴									3	2	5	10(3%)
네덜란드									3	3	3	9(3%)
기타						3	2	6	17	26	33	87(27%)
합계				1	1	4	9	16	72	92	133	328(100%)

〈표 10〉 KCI 공유경제 논문 연도별 현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개수 (비율)		1 (1%)			4 (4%)	5 (4%)	6 (5%)	18 (16%)	21 (19%)	31 (28%)	26 (23%)	112 (100%)

있으며, 두 국가의 논문은 전체 논문 수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9〉 참고). 한국은 국가별 전체 순위 중 4위로 SCIE/SSCI에 공유경제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꾸준히 공유경제 관련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2017년부터 많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빠른 2012년에 공유경제 논문을 게재하였으나, 이후 게재된 논문이 없었다.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게재되기 시작하여 매년 높은 증가율로 공유경제 논문이 게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활발하게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19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논문이 집중으로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학술적 측면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SCIE/SSCI, KCI에 게재된 논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2019년 게재 건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0〉 참고).

4.1.4. 공유자원 유형별 공유경제 연구 동향

공유경제는 자원을 공유하여 지속할 수 있는 환경,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근거한 활동으로, 각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유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발전과 유사 공유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다. 이에 수집한 각 논문에서 어떤 공유자원들로 논의가 되었는지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11〉 참고). SCIE/SSCI, KCI 연구를 보면 공유경제 현상 분석, 문헌 연구, 사례 조사 등으로 진행된 경우는 대부분 구체적인 공유자원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용자 서비

〈표 11〉 SCIE/SSCI, KCI 공유자원별 논문 건수 현황

구분	SCIE/SSCI	KCI
숙박	71(39%)	20(36%)
기타 자원	47(25%)	15(27%)
교통	42(23%)	18(33%)
소매	15(8%)	0(0%)
금융	5(3%)	1(2%)
서비스 및 노동	4(2%)	1(2%)
합계	184(100%)	55(100%)

스, 시스템 및 알고리즘 개발과 평가, 기존 산업과의 비교 등 연구에서는 특정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CIE/SSCI 논문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많았던 기타 자원을 제외한 숙박과 교통이 1위와 2위로 2개의 공유 자원이 62%의 비율로 전체 논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KCI 논문에서도 SCIE/SSCI 공유자원 순위와 동일하게 숙박, 교통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숙박과 교통 이외 SCIE/SSCI에서의 “기타 자원”은 26%로 주차, 의료 대여, 에너지 및 자원, 식량 공유 등 건수는 적지만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KCI에서는 물류 관련 공유자원 연구가 ‘기타 자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SCIE/SSCI, KCI에서의 “기타 자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유자원이 해당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 사회적 중요성 등을 직접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 공유경제 주제별 연구 동향

(1) 공유경제 주제 현황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연구주제에서는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공유경제 기본 개념” 두 가지 주제에서 SCIE/SSCI는 70%, KCI는 67%의 높은 비중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표 12〉〈표 13〉 참고). 이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론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따라 산출된 결과의 분석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연도별 주제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1		3	5	9	51	37	81	187(57%)
공유경제 기본 개념						1	1	4	8	19	11	44(13%)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방식의 관계 및 영향					1		3		8	12	15	39(12%)
공유경제 시나리오 분석								1	3	13	15	32(10%)
사회 구성원의 발전 전략								2	2	11	11	26(8%)
합계				1	1	4	9	16	72	92	133	328(100%)

〈표 13〉 KCI 공유경제 주제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2	3	1	10	10	13	13	52(46%)
공유경제 기본 개념							1		3	8	12	24(21%)
공유경제 시나리오 분석							1	2	7	8		18(16%)
사회 구성원의 발전 전략		1			2	2	1	5		1		12(11%)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방식의 관계 및 영향							2	1	1	1	1	6(5%)
합계		1			4	5	6	18	21	31	26	112(100%)

SCIE/SSCI, KCI 논문의 연도별 연구주제 현황을 살펴보면 SCIE/SSCI는 2017년부터, KCI는 2016년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IE/SSCI 경우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이외의 연구주제는 소폭 상승 혹은 감소하거나 정체기의 추세를 보인다. KCI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공유경제 기본 개념” 이외의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가 정체되었다. 공유경제에 관해 학술적으로는 SCIE/SSCI보다 민첩하게 접근을 하였지만, 다각화된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지 않은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한 거부감 등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경험적 연구 외의 연구가 필요하다.

SCIE/SSCI, KCI 연구를 보면 대부분 각 관점에서의 영향력을 이해하거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공유경제 자원의 사업화를 고려한 실험적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2. 공유경제 내 MIS 분야 연구 동향

SCIE/SSCI, KCI에서 수집된 공유경제 문헌에서 MIS 분야의 연구로 포함되는 연구를 선별하였고, SCIE/SSCI에서는 79개(전체 논문 중 24%), KCI에서는 40개(전체 논문 중 36%)의 문헌으로 메타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4.2.1. MIS 연구주제별 현황

MIS 분야로 포함되는 논문 중 연구주제별 기준에 따른 SCIE/SSCI, KCI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SCIE/SSCI에서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연구가 35개로 MIS 분야 전체 논문 중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정보 시스템 이론”,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이 2위, 3위를 하였으며, 상위 3개의 연구를 종합하면 MIS 분야 전체 연구 중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활용과 기술 수용, 모델 개선 그리고 이론 연구가 주된 연구로 확인되었다(<표 14> 참고). KCI에서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이 34개로 MIS 분야 전체 논문 중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보 시스템 이론”, “내 외부적 IT 환경”에서 극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외의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5> 참고).

SCIE/SSCI, KCI에서의 전체 공유경제 논문 중 MIS 분야 논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SCIE/SSCI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에 편향된 연구가 되었지만, 그 외 연구주제에서도 고르게 진행은 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KCI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연구만 진행되었고 그 외의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주제에서 SCIE/SSCI, KC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KCI에서 더 활발하게 IS 활용과 기술 수

<표 14>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중 MIS 분야 연도별 연구주제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1			1	2	7	9	15	35(44%)
정보 시스템 이론									5	5	8	18(23%)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1	3	5	9	18(23%)
정보 시스템 평가									1	2	4	7(9%)
내 외부적 IT 환경											1	1(1%)
합계				1			1	3	16	21	37	79(100%)

<표 15> KCI 공유경제 논문 내 MIS 분야 연도별 연구주제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2			6	8	9	9	34(85%)
정보 시스템 이론								1	1	1	1	4(10%)
내 외부적 IT 환경									1	1		2(5%)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0(0%)
정보 시스템 평가												0(0%)
합계					2			7	10	11	10	40(100%)

용을 주제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KCI에서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주제에서는 마케팅과 행동 관련 연구가 주된 연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응용 연구(Apply Research)가 앞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2.2. 국가별 연구주제 현황

공유경제 MIS 분야 연구의 국가별 연구주제 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게재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한국, 독일이 공동 순서로 확인되었다(<표 16> 참고). SCIE/SSCI에서 공유경제 연구 전체를 확인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지만, MIS 분야로 한정된 결과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주제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주제별 SCIE/SSCI, KCI에 게재된 논문을 살

펴보면, SCIE/SSCI, KCI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별 KCI를 정리한 <표 15>를 확인하면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정보 시스템 이론”, “내 외부적 IT 환경” 주제로 연구가 되었고, SCIE/SSCI를 정리한 <표 16>에서는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내 외부적 IT 환경”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 저자가 게재한 연구주제가 SCIE/SSCI, KCI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4.2.3. 연구방법별 현황

SCIE/SSCI 전체 공유경제 논문 중 MIS 연구로 포함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개념적 분석”이다. 이러한 현황은 새로운 공유자원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공유 현상에 관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 분석 외 다른 연구방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방법인 설문

〈표 16〉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중 MIS 분야 국가별, 주제별 현황

구분	중국	미국	영국	한국	독일	호주	프랑스	스페인	홍콩	일본	기타	합계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10	2	2		6	2	2			2	9	35 (44%)
정보 시스템 이론	4	4	4			1			1		4	18 (23%)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3	3		5				2	2		3	18 (23%)
정보 시스템 평가		1	2	1			1	1			1	7 (9%)
내 외부적 IT 환경											1	1 (1%)
합계	17 (22%)	10 (13%)	8 (10%)	6 (8%)	6 (8%)	3 (4%)	3 (4%)	3 (4%)	3 (4%)	2 (2%)	18 (23%)	79 (100%)

〈표 17〉 SCIE/SSCI, KCI 공유경제 논문 중 MIS 분야 논문의 연구방법별 현황

연구방법	SCIE/SSCI	KCI
개념적 분석	39(49%)	14(35%)
설문 조사	17(22%)	26(65%)
도구 개발	12(15%)	0(0%)
시스템평가	10(13%)	0(0%)
메타스터디	1(1%)	0(0%)
합계	79(100%)	40(100%)

조사, 도구 개발, 시스템 평가, 메타스터디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17> 참조).

KCI 공유경제 논문 중 MIS 연구로 포함되는 연구에서는 SCIE/SSCI와는 다르게 실증적 연구에 포함되는 설문 조사 연구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념적 설명이 연구방법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 외 다른 연구방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SCIE/SSCI와 대조적인 현상으로 국내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됐다.

4.2.4. 연구분석 단위별 현황

공유경제는 지역, 조직이 직접 경제활동을 수행하

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기업, 개인이 주된 역할자로 연구분석 단위에서도 대부분 기업과 개인 단위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CIE/SSCI, KCI 공유경제 논문 중 MIS 연구로 포함되는 연구분석 단위를 분석하였다(<표 18> 참고), 그 결과 SCIE/SSCI에서는 기업, 개인 분석 단위가 가장 많았고, KCI에서는 개인 분석 단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분석 단위는 주로 설문 조사 방법을 적용한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 현상은 공유경제 내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소비자 행동 연구나 개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연구분석 단위인 기술, 국가 단위에서는 SCIE/SSCI에서는 미미하지만, 각각 7건, 6건의 연구가

〈표 18〉 SCIE/SSCI, KCI 공유경제 논문 내 MIS 분야 연구분석 단위별 현황

분석 단위	SCIE/SSCI	KCI
기업	33 (42%)	13 (33%)
개인	33 (42%)	25 (63%)
기술	7 (9%)	0 (0%)
국가	6 (7%)	2 (4%)
합계	79(100%)	40(100%)

게재되었고, KCI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2건, 기술 단위에서는 0건의 연구가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CIE/SSCI가 KCI보다 연구분석 단위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5. 연구 토의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 토의

본 연구는 기존 사업과의 마찰, 자원/서비스의 공유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불안 등으로 공유자원의 실제 활용이 국내에서 저조하지만, 차량 공유 등의 자원 활용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 비용 절약 등으로 경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술적 측면에서 전 세계의 공유경제 현황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각 학술 분야에서 수행되어온 SCIE/SSCI, KCI에서 공유경제 연구를 수집 후 메타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진행된 각 학술적 업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더 나아가 수집된 공유경제 논문 중 MIS 분야에 포함할 수 있는 연구를 선별하여 같은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SCIE/SSCI, KCI에서 수행된 공유경제 연구 전체를 학문 분야, 국가별, 공유자원별, 연구주제별 등의 메타정보를 기준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

였고,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 토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분야별 결과를 보면, 해외 학문 분야에서는 ‘경영학’ 학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다음으로 “환경학”,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KCI에서는 SCIE/SSCI와 같이 “경영학” 학문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으로 “법학”, “다학제 과학” 학문에서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은 최유성, 안혁근(2018)이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는 독립적인 공유경제 추진 체계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가치교환 방식에 관한 법률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 개선 등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산업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률과 제도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및 산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같은 현상은 새로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제도 및 규정의 제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신 경제체제가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별 연구 현황을 비교해 보면,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가 SCIE/SSCI, KCI에서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SCIE/SSCI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의 순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학

술적 기여도가 높았고, 그다음으로 한국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공유경제 연구의 양적 측면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4번째로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빠른 적응과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 수의 양적인 측면에서 2019년이 2018년 대비 감소한 현상이 있고, KCI에 게재된 경향에서도 논문 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의 공유경제 관심과 연구 영역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은 송경석(2014)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 도시 형성 및 공유 서비스 사업이 지속해서 출몰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유자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SCIE/SSCI에서 가장 많이 연구 대상으로 활용된 자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이고, 그다음으로 “기타 자원”과 “교통”이 뒤를 잇는다. “교통” 자원 다음에는 “소매”와 “금융”, “서비스 및 노동” 자원이 있다. KCI도 “숙박”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다음으로 “교통”, “기타 자원”, “서비스 및 노동” 순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SCIE/SSCI, KCI 모두 “숙박”과 “교통”이 공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지만 SCIE/SSCI는 “기타 자원”으로 지식재산권, 주차 공간, 의류 대여 등과 같이 다양한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KCI는 아직 “숙박”, “교통” 외 다양한 공유자원을 기반한 연구가 미미하므로 SCIE/SSCI의 연구 사례는 학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연구주제는 SCIE/SSCI, KCI 모두 “공유경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공유경제 기본 개념” 순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공유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

초 연구부터 실제 서비스 운영과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수진(2019)은 공유경제가 시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아직 국내 공유경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그 잠재성을 깨워 공유경제가 새로운 사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관점의 학술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공유경제 연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후 공유경제 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실현에 상호보완적인 영향력을 가진 MIS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공유경제 내에서의 MIS 연구의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유경제 메타분석 이외에 연구주제별, 국가별 현황, 연구방법론과 연구분석 단위 등을 기준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IS 분야의 연구 주제가 KCI와 SCIE/SSCI에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SCIE/SSCI에서 MIS 연구는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정보 시스템 이론” 순으로 KCI 연구보다 고르게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KCI 연구는 85%가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에 편향되어 연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SCIE/SSCI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고윤승(2014)이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공유경제 모델은 해외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사용 및 채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CIE/SSCI에서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개발” 주제가 많이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으로 신기술인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도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개척을 차원에서 IS 디자인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둘째, MIS 분야 연구주제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공

유경제 전체 현황과 함께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차이점은 중국이 미국보다 MIS 영역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황을 볼 때 미국에서 공유경제가 시작되었지만, 정보의 생산과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MIS의 학술적 논의와 발전은 중국에서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연구분석 단위에서의 MIS 연구 현황을 보면, SCIE/SSCI 연구의 연구방법 관점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 맞게 고르게 진행됐지만, KCI에서는 “개념적 분석”과 “설문 조사” 방법이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공유경제에 대한 “도구 개발”이나 “시스템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려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또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이 조직에서의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국내 공유경제 기업이 아직 많지 않고 성공 사례가 없으므로 개발과 평가와 같은 연구방법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연구분석 단위에서는 SCIE/SSCI, KCI 모두 “개인”과 “기업”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63%나 되어 개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과 제도에 영향이 많은 만큼 국가적으로 공유경제 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기업지원 정책, 활용도 제고와 같은 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5.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난 10년간의 공

유경제 연구를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 조망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SCIE/SSCI에 게재된 공유경제 논문과 KCI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공유경제 시나리오 분석”, “사회 구성원의 발전 전략”,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방식의 관계 및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공유경제 논문 중 MIS 관련 논문을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MIS 분야와 연관된 공유경제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공유경제 연구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공유경제 연구를 살펴보면 공유경제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 기준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공유경제 논문의 연구내용에 Heinrichs(2013)이 제시한 공유경제 연구 의제를 적용하여 공유경제 연구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유경제 연구를 정량적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기여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차후 공유경제 주제의 학술적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공유경제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MIS 연구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비즈니스 맥락에서 새롭게 연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KCI 공유경제 연구의 학문 분야 중 MIS 분야 학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학”의 논문 게재 건수는 전체 내 12위다. 아직 MIS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유경제 연구는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MIS 연구자들이 국내 공유경제에 관해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정보 시스템’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유경제의 자원 유형을 분석하여 국내·외의 차이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분석은 공유경제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떤 공유자원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시장성 있는 공유자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시작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유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김성훈 2020), 본 연구의 자료가 투자 기업이 공유경제 시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T 컨설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상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했다. 즉,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소매, 서비스 노동, 금융 등의 공유자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신생기업이나 새로운 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새로 출범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제도 마련 영향을 줄 것이다. 공유경제 학문 분야 분석을 살펴보면 “법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사업주들과의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였으며, 특히 숙박, 교통 등의 공유자원 연구는 기존 업체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다. 이 사례는 다른 유형의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자원 추세 분석을 통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을 예측하고 그에 적절한 법, 제도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제도적 측면의 공헌도가 있다.

5.3.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 이은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메타분석

을 위한 분류 기준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유경제 확산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행된 메타분석의 기준은 연구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메타정보 기준을 가질 수 있고, 설정된 메타정보의 분류체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결과와 해석이 도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른 메타분석 분류 기준으로 지속적인 공유경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방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고 일목요연하며 간결하게 살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수집된 논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연구 주제별에 따른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헌 검토(Literature Review)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10년의 학술 결과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한정된 연구 기간을 설정하고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ICT 기술은 계속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진화 잠재성 역시 충분하므로 ICT 기술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공유경제의 학술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최근 주요 논란**.
2. 고윤승 (2014).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15(6), 77-100.
3. 곽나연, 이중전, 맹윤희, 조방호, 이상은 (2017). 메타스터디를 통한 국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 **정보화정책**, 24(3), 91-107.
4. 김경은 (2019, 6월 4일). 지난해 공유경제로 1978억원 부가가치 창출...3년만에 9.7배 성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88006622518440&mediaCodeNo=257>
5. 김기연 (2020).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메타스터디를 통해 본 공유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동향 분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1(4), 97-107.
6. 김맹근 (2020, 5월 28일). 공유경제 국내 활성화에 관하여. **데이리비즈온**,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04>
7. 김성훈 (2020, 10월 13일). [마켓인] '무소유' 시대가 온다...공유경제에 베팅하는 투자업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25932592&mediaCodeNo=E>
8. 김지예, 한인구 (2020). 한국 차량공유사업의 성공요인 사례분석. **지식경영연구**, 21(3), 1-25.
9. 김형균, 오재환 (2013). **도시재생 소프트웨어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
10. 박건철, 이상돈 (2016).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11. 서경석 (2018). 카 셰어링(Car Sharing)의 현재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 소유에서 공유로...공유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카 셰어링, 향후 가장 주목할 만한 자동차관련 시장이 될 것. **오토저널**, 40(9), 26-28.
12. 성욱제 (2012). **국내 미디어 다양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방송통신연구.
13. 신태범, 권상희 (2013). 국내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분석 대상과 주제, 이론 및 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9(2), 200-249.
14. 심수진 (2016).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6(4), 163-183.
15. 심수진 (2019).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별 동기요인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8), 110-122.
16. 안희자 (2019). 공유경제 활성화의 이슈와 쟁점: 공유숙박의 제도화 논의. **한국관광정책**, (75), 86-90.
17. 이경민, 배채운, 정남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생태계 정책 제안: 우버(Uber)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9(1), 175-202.
18. 이수형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경제적 및 진입 규제적 특성과 함의. **법경제학연구**, 17(1), 251-277.
19. 이장우, 이홍, 장수덕, 이정기 (2015).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 이정수, 전희성, 정명선 (2016).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가격민감성신뢰성과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57-72.
21. 이현진, 박현정 (2019). 숙박 공유경제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205-216.
22. 임한술, 성정환 (2016). 공간의 영역과 관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서비스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6(4), 21-28.
23. 장덕호, 신인수 (2011). 교육학 연구방법으로서 메타분석(Meta Analysis)의 발전과정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4(3), 309-332.
24. 장엽, 박현정 (2019). 공유자동차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17(7), 99-108.
25. 정윤경, 하예영, 이혜인, 양희동 (2020). 공유경제 체제로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한 와인투자 주식플랫폼 프레임워크. **지식경영연구**, 21(3), 45-65.
26. 정철호, 정윤수 (2020).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경제연구**, 42(2), 134-151.
27. 조연수, 정용길 (2019).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183-196.
28. 조은주, 서상혁 (2018). 공유경제서비스 이용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1(4), 1411-1444.
29. 최문용 (2017). Airbnb(에어비앤비) 서비스브랜드의 실패 요인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5(4), 231-240.
30. 최유성, 안혁근 (2018).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략. 한국행정연구원.

[국외 문헌]

31. Acquier, A., Daudigeos, T., & Pinkse, J. (2017). Promises and paradoxes of the sharing economy: An organizing frame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 1–10.
32. Aluchna, M., & Rok, B. (2018). Sustainable business models: The case of the collaborative economy. In *Sustainable business models* (pp. 41–62). New York: Springer.
33. Botsman, R., &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New York, NY: Harper Business.
34. Cao, D. (2017). Regulation through deregulation: Sharing economy companies gaining legitimacy by circumventing traditional frameworks. *Hastings Law Journal*, *68*(5), 1085–1110.
35. Cervero, R., Golub, A., & Nee, B. (2007). City carshare: Longer-term travel demand and car ownership impac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992*(1), 70–80.
36. Cheng, M. (2016). Sharing economy: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57*, 60–70.
37. Cheng, X., Fu, S., & De Vreede, G. J. (2018). A mixed method investigation of sharing economy driven car-hailing services: Online and offline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 57–64.
38. Cherry, M. A. (2017). The sharing economy and the edges of contract law: Comparing US and UK approaches.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5*(6), 1804–1845.
39. Chica, M., Chiong, R., Adam, M. T., & Teubner, T. (2019). An evolutionary game model with punishment and protection to promote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Scientific Reports*, *9*(1), 1–12.
40. Cooper, H. M. (1982). Scientific guidelines for conducting integrative research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2), 291–302.
41. Cristobal-Fransi, E., Hernández-Soriano, F., Ferrer-Rosell, B., & Daries, N. (2019). Exploring service quality among online sharing economy platforms from an online media perspective. *Sustainability*, *11*(13), 3690.
42. Ert, E., Fleischer, A., & Magen, N. (2016). Trust and reput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he role of personal photos in Airbnb. *Tourism Management*, *55*, 62–73.
43. Gansky, L. (2010). *The mesh: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haring*. Penguin.
44. Gleim, M. R., Johnson, C. M., & Lawson, S. J. (2019). Sharers and sellers: A multi-group examination of gig economy workers' percep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8*, 142–152.
45. Hamari, J., Sjöklint, M., & Ukkonen, A. (2016).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96*(9), 2047–2059.
46. Heinrichs, H. (2013). Sharing economy: A potential new pathway to sustainability. *GAIA—Ecological Perspectives for Science and Society*, *22*(4), 228–231.
47. Hevner, A. R., March, S. T., Park, J., & Ram, S. (2004). Design science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IS Quarterly*, *28*(1), 75–105.
48. Johal, S., & Zon, N. (2015). Policy making for the sharing economy: Beyond whack-a-mole. *Mowat Publication*, *106*, 1–26.
49. Lawson, S. J., Gleim, M. R., Perren, R., & Hwang, J. (2016). Freedom from ownership: An exploration of access-based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8), 2615–2623.
50. Lee, A. S. (1999). *Researching m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27.
51. Li, H., & Srinivasan, K. (2019). Competitive dynamics in the sharing economy: An analysis in the context of Airbnb and hotels. *Marketing Science*, *38*(3), 365–391.
52. Martin, E., Shaheen, S. A., & Lidicker, J. (2010). Impact of carsharing on household vehicle holdings: Results from North American shared-use vehicle surve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143*(1), 150–158.
53. McGinnis, J. O. (2018). The sharing economy as an equalizing economy. *Notre Dame Law Review*, *94*(1), 329–369.

54. Miller, S. R. (2016). First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sharing economy.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53*(1), 147–202.
55. Owyang, J., Tran, C., & Silva, C. (2013). *The collaborative economy*. Altimeter, United States.
56. Palvia, P., Daneshvar-Kakhki, M., Ghoshal, T., Uppala, V., & Wang, W. (2015). Methodological and topic trend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 meta-analysis of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37*(1), 30.
57. Posen, H. A. (2015). Ridesharing in the sharing economy: Should regulators impose Uber regulations on Uber. *Iowa L. Rev.*, *101*, 405.
58. Sung, E., Kim, H., & Lee, D. (2018). Why do people consume and provide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Sustainability*, *10*(6), 2072.
59. Taeihagh, A., & Crowdsourcing (2017). Sharing economies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33*(2), 191–222.
60. Tussyadiah, I. P.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drivers and deterrent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travel.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ourism 2015* (pp. 817–830). Springer, Cham.
61. Vessey, I., Ramesh, V., & Glass, R. L. (2002).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An empirical study of diversity in the discipline and its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2), 129–174.
62. Wagner, N., Strulak-Wójcikiewicz, R., & Landowska, A. (2019). Trust in sharing economy business models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ers in Szczecin, Poland. *Sustainability*, *11*(23), 6838.
63. Zamani, E. D., Choudrie, J., Katechos, G., & Yin, Y. (2019).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The AirBnB case.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9*(9), 1947–1968.
64. Zekan, B., Onder, I., & Gunter, U. (2019). Benchmarking of Airbnb listings: How competitive is the sharing economy sector of European cities? *Tourism Economics*, *25*(7), 1029–1046.
65. Zloteanu, M., Harvey, N., Tuckett, D., & Livan, G. (2018). Digital identity: The effect of trust and reputation information on user judgement in the sharing economy. *Plos One*, *13*(12), e0209071.

부록 1. SCIE/SSCI 공유경제 논문 학문 분야 연도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경영학						2	3	6	16	24	35	86
환경학					1		2	2	12	17	32	66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2	8	10	16	36
정보 시스템학						1		2	1	5	10	19
법학							2	2	5	3	6	18
경제학								1	7	3	5	16
사회학								1	2	9		12
산업공학									2	1	7	10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1		4	3	2	10
지역 및 도시 계획학									4	4	2	10
커뮤니케이션				1					3	2	2	8
컴퓨터 과학									2		3	5
다학제 과학									1	2	1	4
에너지 및 연료									1	1	2	4
교통						1				2	1	4
지리학							1			2	1	4
전기 전자 공학									1		2	3
농업 및 식품									2	1		3
심리학											2	2
자동 및 제어 시스템										2		2
언어학									1			1
수학											1	1
다학제 공학											1	1
기상학 및 대기 과학										1		1
정치학											1	1
의료 관리 과학 및 서비스											1	1
합계				1	1	4	9	16	72	92	133	328

부록 2. KCI 공유경제 논문 학문 분야 연도별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경영학					2	4	2	2	4	7	7	28
법학								2	4	8	4	18
다학제 과학					1			4	3	2	4	14
호텔, 레저, 스포츠 및 관광학								4	1	2	2	9
사회학							1			4	1	6
정치학					1		1	2			2	6
경제학									3	1	1	5
보건 과학 및 서비스								1	2	1		4
지역 및 도시 계획학		1					1			1	1	4
정보 과학 및 도서관학								1		1	2	4
산업공학							1	1	1		1	4
정보 시스템학								1	2	1		4
컴퓨터 과학									1	2		3
커뮤니케이션											1	1
교통						1						1
다학제 공학										1		1
합계		1			4	5	6	18	21	31	26	112

저 자 소 개



이 중 정 (Choong C. Lee)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MIS분야에 관련된 정성 및 정량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케팅 분야의 대표적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인 SERVQUAL을 최초로 IS분야에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과학적 실증 연구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접목한 융합적 속성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안 재 영 (Jaeyoung An)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을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이며, 데이터 분석,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IT 평가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MIS 분야 학술지에 정성 및 정량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게재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립적인 제조 산업의 IT 혁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석재 산업 IT 응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행 미 (Haengmi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중이며, 지식 관리 시스템, 지식 공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관심 분야의 연구를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행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김 우 석 (Wooseok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oT서비스융합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이며, 수학적, 정량적 문제 해결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운영장비 품질로그 기반의 계량분석 및 머신러닝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cademic Efforts for the Progress of ICT–Based Sharing Economic: Using Meta–analysis in MIS and Other Related Fields

Lee, Choong C.^{*}, An, Jaeyoung^{**}, Kim, Haengmi^{***}, Kim, Wooseok^{****}

The sharing economy is recognized as a new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digital service platform, but the sharing economy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Korea due to a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There is a need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sharing economy in positive perspective in order to make up business with advanced economies global and explore new markets. In this study, after collecting papers of the sharing economy over the past decade published by each academic field around the world, we reviewed them from academic lens and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meta analysis methodology. Then, we selected papers of MIS field and analyzed the trends of the MIS field research in these papers. As a result we identified the research trend of the sharing economy and the MIS research and drew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the two studies by examining importance and relevance of MIS research in the sharing economy research.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neighboring disciplines and to establish a positive social, economical and industrial position in Korea.

Key Words: Sharing Economy, Literature Review, MIS, Meta–Analysis, Classification criteria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